

보도시점

2024. 2. 28.(수) 11:00

2. 29.(목) 조간

배포

2024. 2. 28.(수) 09:00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에 총력

- 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 공동 발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8일 중수본 회의실(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 야생멧돼지 ASF 발생 최인접지역인 포항, 청송으로부터 104km 이격

** '20.12월 이후 현재까지 파주시 야생멧돼지 ASF 미검출 및 발생농가 주변 토양물 시료 9점도 불검출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한다. 또한 포획 5대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①포획 전·후 현장 및 차량 소독 ②포획 후 환복 ③포획 개체 밀봉,
④포획시 전용화 착용(신규), ⑤차량 내 대형 보관함 설치(신규)

아울러,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동일개체 여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자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 전국 167개 시·군 중 비발생지역 125개 시·군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안내했다.

- 붙임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2. 인위적 확산방지 대책 전·후 비교표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홍금용 (044-201-2546)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책임자	과 장	이현준 (044-201-7491)
		담당자	사무관	임형준 (044-201-7492)

붙임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1 사육돼지 ASF

- **(현황)** '19.9월 경기 파주 소재 농장 최초 발생, '24.2월 현재 전국 총 40곳 농장에서 발생, 총 52만 마리 살처분(3,000억원 피해규모)

※ ('24년) 경북 영덕 양돈농장 발생(1.15), 경기 파주 양돈농장 발생(1.18)

- **(‘24년)** 경북 영덕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생(1.15) 이후,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추가 발생(1.18)

* 경북 최초 발생, ** 파주시 총 7번째 발생

구분	계	'19	'20	'21	'22	'23	'24	발생시·군(총 15개 시군)
발생 건수	40	14	2	5	7	10	2	(경기) 파주, 연천, 김포, 포천 (인천) 강화 (강원)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 양구, 춘천, 철원, 양양 (경북) 영덕

2 야생멧돼지 ASF

- **(현황)** '19.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최초 발생한 이후, '24.2월 현재 전국 42개 시·군에서 총 3,710건 발생

- **(‘24년)** 1.9일 경북 의성군에서 신규(42번째)로 발생

- **(추이)** '19년 북서부 접경지역(연천, 철원 등) 발생 → '20년 강원 북부 중심 발생
→ '21년 강원 전역 및 충북 북부(단양, 제천)로 확산 → '22년 충북 및 경북 확산
→ '23~'24년 경북 중심으로 확산, 부산 신규 발생

발생	계	'19.10~	'20	'21	'22	'23	'24 (2.26 기준)
건수	3,716	55	856	964	878	735	228
시군(누적)	42	3	11	23	32	41	42

붙임 2

인위적 확산방지 대책 전 · 후 비교표

구분	기존	개선
사육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분 없이 획일적인 농장주 교육 - 별도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미흡 ▪ (농장 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예찰 주 1회 실시 - 지자체 자율적 예찰 검사 - 가축·분뇨 운반차량 관제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우려 지역 구분 맞춤형 방역교육 - 외국인* 전용 교육 프로그램(영상·가상체험 VR) 제작·배포 * 네팔, 태국 등 6개국 ▪ (농장 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예찰 매일 1회 실시 - 위험지역 농장 대상 정밀검사 추가 의무화 - 위험지역 축산차량 이동경로 모니터링 추진 및 방역관리
야생멧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F 검사) 멧돼지 사체, 환경시료 (토양·물) 등 <u>자연적 전파 요인 검사</u> ▪ (수렵인) 자율 방역 ▪ (엽견) 지역 간 이동제한 없음 ▪ (사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사체창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F 검사) 수렵인, 엽견, 탐지견, 수색반, 사체처리반 <u>인위적 전파 요인 확대 검사</u> ▪ (수렵인) <u>5대* 방역지침 시행, 점검 강화</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포획 전·후 현장 및 차량 소독 ② 포획 후 환복, ③ 포획 개체 밀봉 관리 ④ 포획시 전용화 착용(신규), ⑤ 차량 내 대형 보관함 설치(신규) ▪ (엽견) <u>엽견사용 금지구역(발생지역 등) 단속, 이동(발생→비발생지역) 제한</u> ▪ (사체처리) <u>사체창고 구비 의무화, 전담관리인 지정*, 사체 이동(발생→비발생지역) 금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발판, 멧돼지 입·출고시 밀봉 관리 등
담당자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전국 단위 워크숍(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시·도별 <u>집중교육주간 운영</u>(연2회) ▪ (모의연습) <u>비발생지역 사전 대응훈련</u>(분기1회) ▪ (현장점검) 신규 발생시(야생멧돼지, 사육돼지), <u>환경부·농림부 합동 현장점검단 파견</u>

그림1

양돈 농가 ASF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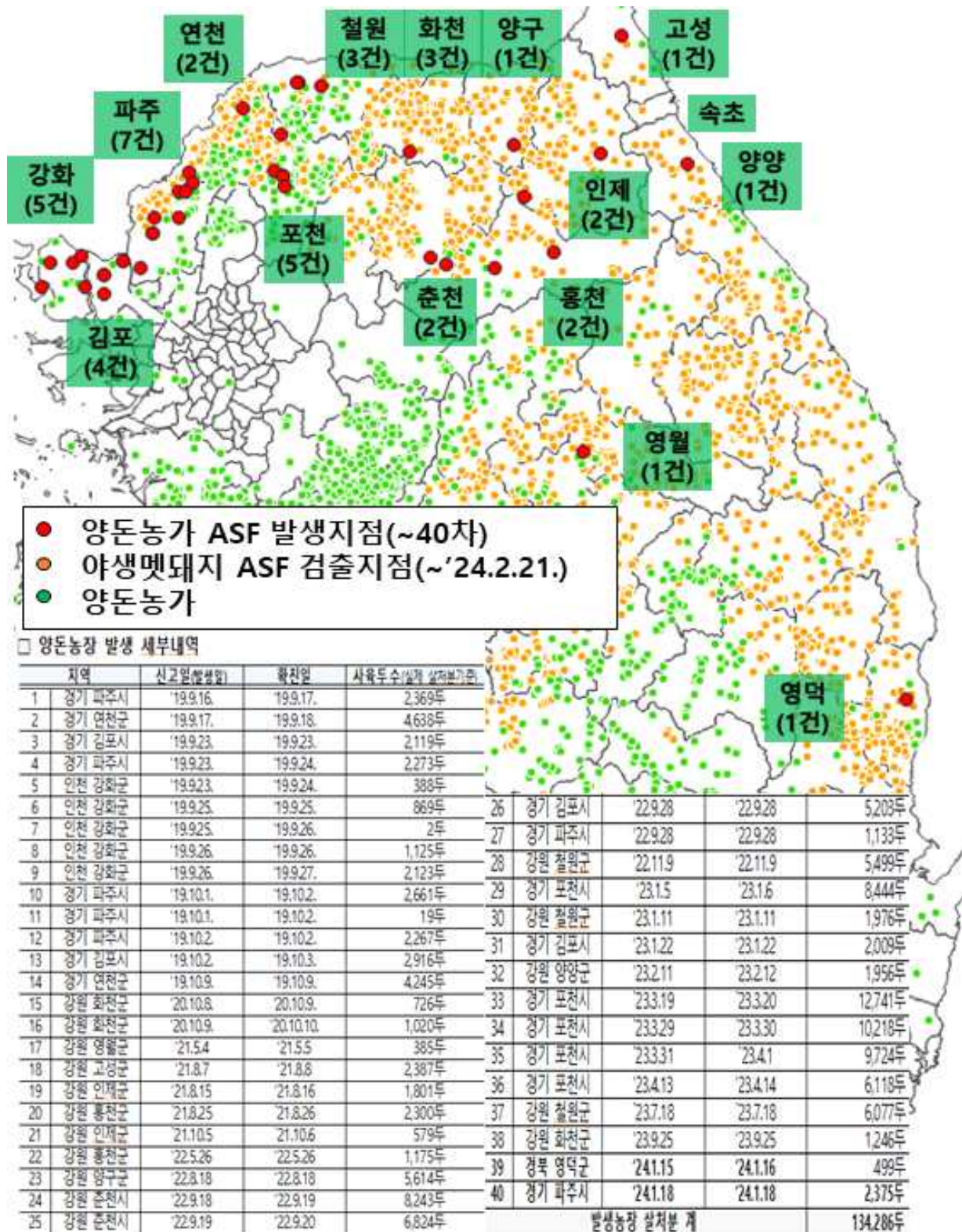


그림2

야생멧돼지 ASF 발생 현황

